

장애인거주시설 의문사 원인 규명돼야 한다

5년간 1228명 사망...원인미상 30명에 달해

복지부 현장조사 안해...“특단 대책 강구해야”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 감독이 극히 소홀해 5년간 1228명이 사망하고, 이 가운데 원인미상이 30명에 달할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단 한번도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다양

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거주하는 만큼 인력배치가 중요한데, 정원대비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학대가 이어지고 있다. 학대 현황 보고서에서도 학대 현장이 집 이외에 거주시설이 21.9%로 압도적이고, 행위자도 시설종사자가

23.1%에 이른다. 장 의원은 “지난해 5년간 거주시설 사망자는 1228명이며, 심지어 원인미상이 30명이다. 복지부는 단 한번의 현장조사도 나가지 않았다”면서 “시설 중에서 5년간 10명이 사망한 곳이 19군데나 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사태가 이지경인데도 나몰라라 하는 복지부를 보고 있으면 국민의 복지를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매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에서 실태조사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계기관이 기존 실태조사를 수정하고 특단의 대

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선 잘 알고 있고 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면서 “꼭 부족한 것으로 인해 거주시설의 학대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 문제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원인 조사 등도 면밀히 대처하겠다. 지자체와 같이 전수조사도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선 도의원,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 강연

발달장애자녀 둔 부모 대상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경선위원장은 지난 29일 전남북지재단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목포시지부에서 주관하는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지원 사업으로 목포와 나주, 해남, 영암 등 서남부권에 거주하며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마련됐다.

“부모가 알아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부모 교육을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기술 및 발달장애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간의 소통하고 가족관계 향상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장의 강연 주요내용은 ‘지역의 장애인복지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정책방향에 대해 사회복지예산과 장애인정책 주요사업, 장애인복지정책변화, 추진과제 등으로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장은 “그동안 장애인 부모들의 노력으로 법규제정 등 지원확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연말에 도에서 설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개원하면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로운 삶을 위한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 자립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참여 자조모임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은 기자



구례군 “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구례군은 지난 2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공무원과 장애인복지관 근무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미화 소장은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등 직장 내에서 필요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 주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항상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교육을 받고 나온 직원들도 “장애인하면 떠오르는 것은 걷기가 힘들고 보이지 않거나, 잘 들을 수가 없다고 단순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희망, 따뜻한 가족과 함께

전남교육청, 1박2일 건강장애학생가족 캠프 성료

전남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 동안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도내 초·중·고 건강장애 학생 13가족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 따뜻한 가족과 함께’를 주제로 캠프를 운영했다.



올해 처음 가진 이번 건강장애학생 가족캠프는 소아암, 백혈병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 및 병원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가족 간 유대감 강화를 통해 학교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박2일 캠프는 체험활동과 힐링타임, 건강관리, 학부모간담회로 진행됐다. 네일아트와 드론, 로봇 등의 체험활동을 비롯 레크레이션과 마술쇼, 워터락 등의 힐링타임, 스트레칭과 마사지, 건강관리법 특강이 펼쳐졌다. 또 학부모 간담회 시간을 통해 자녀의 병원학교와 일반학교 생활의 어려움, 건강관련 회복

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도교육청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올해 처음 진행한 가족캠프를 통해 나도 너도 모두 귀중한 가족 구성원임을 재인식하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건강을 회복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학생가족캠프에 참여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어머니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숙소, 식단, 가족 1 활동보조요원 등 세심한 부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 캠프에 참가한 학생과 가족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됐다.”면서 “아들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가족 모두가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해야겠다.”고 말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